

정부 취득세율 인하... 광주시·전남도 재정보전 요구

연 844억·675억 세수 줄어 타격

인하폭 등 구체적 방안 내달 결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해 광주시·전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수입원 중 하나였던 취득세율을 내리면 재정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는 취득세율을 내리면 연간 1519억원의 세수

가 줄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 부처는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근간 세액 하면 한 해 844억원의 세수입이 줄고, 전남도는 67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근간 세액 하면 한 해 844억원의 세수입이 줄고, 전남도는 67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세자는 "지방세 근간 세액 하면 한 해 844억원의 세수입이 줄고, 전남도는 67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화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구청들

국공유지 사용료

19억여원 징수 포기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국·공유지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19억 5000여만원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난 2~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까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폐지된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일선 구청이 19억54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는 전국적으로 1631억원에 달한다"면서 "국·공유지 관리 소홀로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공 기반시설을 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 공사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이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 일선 구청의 경우 모두 5곳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중 1곳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국·공유지 사용료에 관한 부패신고 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에 이첩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성공단 또 합의못해... 25일 6차회담

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이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용 통일부 남북협력기구지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의 문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했다. 남북은 오는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5차

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이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용 통일부 남북협력기구지

연남뉴스

광산구 원칙·기준없는 계약직 채용

근무시간·급여 제각각... 내부 반발

광주 광산구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계약직 직원 채용을 남발하면서 공직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5기에 들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해 48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37명은 육아휴직 공백 대체 인원으로 1일 7시간 근무에 8급 1호봉과 9급 1호봉인 수준인 연 1560

만원과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계약직 직원은 근무시간과 급여가 제각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되다 보니 공직 내부가 위화감을 느끼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급인 K도 직원은 "중간 간부급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박탈돼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더욱이 정규직

직원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 위화감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첨단도서관장의 경우 1일 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2040만원(수당 제외)의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또한 열린민원실장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전문위원, 구보발행, 갈매자생, 구보편집 등의 업무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도 주 7-8시간 근무에 연봉은 3000만원-4500만원을 지급. 상대적으로 정규직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6급 공무원 대우까지 받고 있어 기존 직원들

과 갈등을 빚는 등 융화되지 못한 채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열린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성절에서 국감원 의원은 "외부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 책임과 권한이 없는 시간제 계약직만 늘어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육아휴직 공백 대체 인원을 제외하면 결코 계약직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직원들의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겠으나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 혼탁지수

장성·완도·광양 높아

전남도 선관위 측정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혼탁지수를 측정해 결과 장성과 완도·광양·나주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혼탁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 측정결과 장성군의 혼탁 지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완도군(6.67점), 광양시(4.83점), 나주시(4.83점), 곡성군(4.67점), 신안군(4.50점), 구례군(4.17점), 영광군(4.17점) 순이었다. 장성군은 혼탁유형 중 '조직선거 위반 행위'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도와 광양은 혼탁유형 중 조직선거 위반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수치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선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으로 10명 이상의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한 지역으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지사 선거 혼탁 지수는 장성군(5.00점), 영광군(4.17점), 완도군(3.33점) 등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22개 시·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 등을 토대로 측정된 것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 선거운동 등 유형지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했다.

전남 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와 오는 9월 2차 측정을 한번 더 실시한 뒤 선거법 혼탁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해 전략적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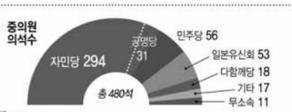
아베, 과반 확보 독주 체제

다자민·공명 참여원선거 대승 일본 참의원 중의원 의석 분포도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양원 공히 '여대야소' 구도를 이룸으로써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일본은 2016년 7월 다음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선거가 없어 아베가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향후 3년가량은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전체 242석의 참의원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총선 84석)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켜 '비개선(非改選)' 의석(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50석을 포함, 115석을 획득해 참의원 제1당에 올라섰다. 다만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으며 비개선 의석 포함 20석(총선 19석)으로 나타나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135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두 연립여당은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이른바 '절대안정 다수'를 점하게 됐다.

총선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총선 86석)은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개선 의석을 포함, 59석을 보유하게 되면서 참의원 제2당 위치로 내려가게 됐다. 이번 선거 성적표는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악이다.

연합뉴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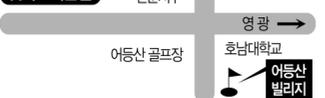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종얼얼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등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운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중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10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